

정부혁신 보다는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글로벌 해양산업!
		배포 일시	2019. 5. 8.(수) 총 4매(본문 2, 참고 2)	
담당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 자	• 과장 박영호, 사무관 운영자, 사무관 류지호 • ☎ (044) 200-5150, 5157, 5197	
보도일시		2019년 5월 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8.(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해수부 조인트벤처 2호, 해산물류 혁신방안 발표

-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차세대 신기술 활용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부처 내 벤처형 조직 「조인트벤처* 2호」가 두 달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수행과제인 ‘차세대 신기술을 활용한 해산물류 혁신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벽을 허물어 기존의 업무분장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찾도록 기획된 조직

「조인트벤처 2호」는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는 2년차 사무관 2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주무관 1명, 울산항만공사 직원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올해 2월 18일부터 2개월간 기존 소속부서와 업무로부터 벗어나 ‘차세대 신기술을 활용한 해산물류 혁신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민해 왔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해산물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먼저, 「조인트벤처 2호」는 선사와 운영사가 빈 컨테이너와 새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였다. 공유플랫폼을 구축하면 임대회사는 유휴자원으로 추가수입을 얻고, 임차회사는 빈 컨테이너와 새시의 이동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항만자원 임대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시(chassis) : 차량과 일체화하여 컨테이너를 탑재하는 트레일러

또한,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빅데이터의 관리 및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정보원’ 설립을 제안하였다. 해양수산정보원이 설립되면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대외적으로는 민간 수요 맞춤형 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해운선사,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운송사에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하여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기사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배차시간을 예약할 수 있게 되어 현재 평균 70분에 달하는 컨테이너 탑재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조인트벤처 2호」 구성원들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과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연계하여 국가물류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물류지도’를 만드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조인트벤처 2호」가 제시한 해상물류 혁신방안을 담당부서에서 정책·제도화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조인트벤처 2호에 참여한 안성순 울산항만공사 과장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뜻깊은 경험이었다.”라며, “조인트벤처 참여를 통해 해상물류 분야 혁신에 작게나마 기여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진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조인트벤처 2호를 계기로, 젊은 직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제점을 탐구하고 직접 해결에도 뛰어드는 혁신적인 조직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조인트벤처 1호」 운영을 통해 ‘오션드론 555’ 비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

분야	추진 사업과 효과
플랫폼 육성&활성화	○ 빈 컨테이너와 새시 공유 플랫폼 구축 - (임대회사) 유헴자원을 플랫폼에 입력하여 추가수입 - (임차회사) 화주 긴급 요청 응대 가능, ‘컨’, 새시 이동 비용 절감 ○ 해운 운임 비교 플랫폼을 통한 중소형 화주 간접 지원 - (선사) 화주 대상 홍보비용 절약 - (화주) 최저가 운임선택으로 비용 절감(플랫폼 업체 추산 약 15%)
데이터 활용	○ 해양수산정보원을 설립하여 고도화·시각화된 통계를 직원에게 제공 - 통계 기반 의사결정으로 정책품질 향상 ○ 민간 수요 맞춤형 데이터 제공 - 데이터 활용 사업 창업 유도 및 해상물류 데이터 新경제 창출 ○ 우리부 포트미스와 관세청 유니패스 연계 - 화물정보 중복 입력 절차를 개선, 물동량 정밀 파악
신기술 적용	○ 사물인터넷으로 실시간 컨테이너 위치추적 - 위험물 컨테이너 실시간 관리, 화물 이동정보를 확인하여 항만운영정책, 교통정책에 활용 ○ 블록체인으로 선사·운행사·운송사 정보교류 전산화 - 화물처리 효율성 증대, 항구 내 혼잡도 감소 ○ 블록체인으로 종이 없는 무역 구현(원본서류 전산 대체) - 서류 위변조·분실 우려 해결, 서류 진위 확인을 위한 시간 단축 및 행정비용 감소
항만 재구성	○ 항구 기능을 운송을 넘어 보관, 제작까지 확대 - 원자재·완제품 운반비용 감소

※ 조인트벤처 2호가 제안한 모든 사업은 관련 실국과에서 재검토 후 사업 추진 여부와 세부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조인트벤처 2호」 팀



혁신 이어달리기 발표('19.4.30)

현장방문(부산신항)



「조인트벤처 2호」 팀 회의

